

간호대학생의 성장기 때 경험한 언어폭력

김미희¹ · 김순옥^{2†}

¹서정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신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022년 11월 17일 접수: 2022년 12월 16일 수정: 2022년 12월 22일 채택)

Verbal Violence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during Growth Period

Mi-Hee Kim¹ · Soon-Ok Kim^{2†}

¹Department of Nursing, Seojeong University

^{2†}Department of Nursing, Shinhan University

(Received November 17, 2022; Revised December 16, 2022; Accepted December 22, 2022)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문제 해결과 보호자 및 동료들과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언어적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간호대학생이 성장기 동안 경험하는 언어폭력을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질적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심층적으로 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 있는 A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0명의 간호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이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체험의 본질에 집중하고자 실존적 탐구 과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5가지의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다섯 가지 주제 문항은 '사소한 대화로 시작하기', '혼란스러운 마음 얻기', '나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 '생각의 틀 바꾸기', '성숙한 나를 만들기'였다. 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사용과 개인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위해서는 공감이나 자기긍정적 효과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주제어 : 간호학생, 언어폭력, 성장기, 질적연구, 현상학

Abstract : The purpose is van Manen's interpretation of verbal violence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during their growing up period in order to use it as basic data to improve the verbal communication essential for solving nursing problems and performing tasks with guardians and peers. For this, 10 students enrolled in the nursing department of A University in Gyeonggi-do were selected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Data analysis conducted an existential inquiry process to focus on the essence of experience. Five thematic statements in this study were as follows: 'Beginning with a trivial conversation', 'Getting confused mind', 'Being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myself', 'Changing the frame of my thought' and 'Making a mature me'. As a result, it confirmed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language usage and personal competency that respect the other party.

[†]Corresponding author
(E-mail: kso6210@nate.com)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follow-up studies on empathy or self-positive effects are needed for effective communication techniques.

Keywords : Nursing student, Verbal violence, Growth period, Qualitative research,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metho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언어는 인간만이 가지는 고유한 속성이며 중요한 정신적 능력으로서, 언어의 사용과 인간의 사고는 지속성을 가지며 인간의 정신과 본질을 이해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1]. 인간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인간간 상호작용을 위해 매우 중요한 도구로 언어를 사용하며, 말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수용하고 동시에 그와 관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 이러한 언어의 속성에 의해 어떠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사람의 정신과 본질이 드러나게 된다. 또한 언어는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 사회의 가치나 규범 등을 포함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그 사회의 현실 생활을 반영하며 사회 문화 현상에 따른 사회구성원간 영향을 주고받는 매우 밀접한 매개체로 작용하는데[1], 이러한 언어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언어폭력이라고 한다[3,4].

교육부[5]에 의하면 초·중·고등학생이 경험하는 학교폭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언어폭력으로, 그 비율은 2018년 34.7%에서 2019년 35.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언어폭력은 학교폭력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이다[6]. 그 중 초등학생 피해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피해 학생들은 언어폭력과 함께 집단 따돌림 현상과 정서적 피해, 우울현상이나 자존감 저하 등의 문제를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화 또는 거친 말투에 의한 언어폭력은 정신적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뇌에 손상을 입힌다는 것이며 [7,8], 언어폭력은 심리적인 반사회적 행동의 한 유형으로 공격행동이며, 이러한 언어폭력의 문제는 단순한 언어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된 후 사회 적응력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9].

EBS 청소년 특별기획 언어폭력 개선 프로젝트[10]를 기획한 정범석교수에 의하면, 언어폭력을 경험한 그룹이나 언어폭력을 자행한 그룹 모두에서 뇌의 MRI 분석 결과 해마의 크기가 작아졌고 뇌 회로의 발달이 늦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욕설이나 모욕, 모멸, 협박성적인 말을 듣고 성장한 아이들의 뇌파를 측정된 결과 집중력이 저하되고 전두엽의 기능이 약화되는 등 두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는 또한 하나의 습관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는가에 따라 뇌의 역할과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러한 뇌 기능의 변화는 언어 사용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다양한 현상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 중 하나가 언어에 의한 폭력문제이며, 언어적 폭력의 심각성은 학교를 비롯하여 보건의료현장 등 여러 사회 부분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11]. 특히 간호사는 간호업무 수행 특성상 동료간 타부서간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을 해야 하며, 대상자의 간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끊임없는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한 간호중재를 제공해야 한다.

더욱 간호학생은 미래의 전문직 간호사로서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간호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간호업무 수행을 위해 보호자나 동료, 여러 분야의 병원 관계자들의 협력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언어적 소통은 매우 필수적이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간호학생이 성장기에 경험한 언어적 경험은 정서적 안정감이나 자존감 형성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하나의 언어적 습관으로 작용하여 졸업 후 전문직 간호사로서 대상자에게 간호업무 제공이나 보호자, 기타 병원 의료관계자들과의 업무 협조나 친밀감 형성,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언어폭력과 관련된 연구 현상을 다룬 종단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이에 간호학생이 성장

기에 경험한 언어폭력은 어떠한지 그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파악해보고자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고 중요하며, 이로서 건강한 언어적 의사소통을 위한 개선방안과 제안을 위한 지표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이 성장기에 경험한 언어폭력은 어떠한가를 파악하고 분석하고자 하며, 연구를 위한 현상학적 질문은 ‘어떠한 언어폭력을 경험하였으며, 경험의 본질과 의미는 무엇인가’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성장기 때 경험한 언어폭력은 어떠한 것이었으며, 그 경험의 본질과 의미는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해보고자 하는 질적연구로, van Manen [12]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2.2. 연구 참여자

본 연구를 위한 연구대상자는 I시에 위치한 G대학교 학생들 중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고자 동의한 학생으로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총 10명이었다. 구체적인 참여자 선정기준은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어릴적 체험한 언어폭력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경험의 현상이 본인의 성장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참여자로서 하였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연구 참여자가 속한 대학의 학과장으로부터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참여자 모집을 위한 공지를 허락받은 후 참여자 선정을 진행하였으며, 선정기준에 따라 참여한 학생은 모두 1학년 학생이었다.

연구 진행 과정은 면담 1회 이상 진행될 것이며, 면담시 녹음과 필사 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녹음과 필사된 면담 내용은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결과는 학회지를 통해 출판 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연구 종료 후 면담 자료와 녹음 자료 등은 폐기 될 것이며,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대하여도 설명하였

다. 연구 참여자들의 권리 보호와 연구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연구 참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 과정 중 나타날 수 있는 피로도와 심리적 부담 등이 있을 시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2.3.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자는 정신과 병동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정신간호학을 비롯하여 인간심리의 이해와 의사소통이라는 학과목을 역서하고 오랜 시간 동안 강의한 경험이 있다. 강의 내용에 따라 의사소통의 효과적/비효과적 의사소통 기법이나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의사소통을 통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또한 언어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과 특정하게 사용된 언어가 상대방에게 미칠 수 있는 정신적, 심리적 영향 등에 대하여 집단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여 집단 구성원간 대화를 통해 언어의 폭력성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 어떤 영향을 받는지 등에 대하여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강의가 종료되고 나면 여러 학생들의 질문이 쏟아지기도 하였다. 가장 많은 질문 내용은 자신의 소통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바꾸고 싶는데 잘 되지 않는 점, 특정 상황에서 원치 않은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효과적인지, 과거 들었던 말로 인해 상처 받은 마음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등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돌이켜 보면 연구자 역시 과거 어린 시절 부모님을 비롯하여 형제자매, 이웃 친지 어른, 동료들뿐만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사람으로부터 본의 아닌 상황에 의해 들어야 했던 여러 말들 중에서 상처로 남아 있는 것들이 되뇌어지기도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들었던 말에 의한 상처나 기억들이 지금은 많이 흐려지고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얘기꺼리가 되기도 하지만, 돌이켜 보면 어릴 적 그 당시에는 굉장한 충격과 상처를 받았던 것 같다.

따뜻한 말 한마디, 상대방을 배려하는 성숙한 언어문화 등 언어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언어폭력 문제가 중요시 되고 있다는 것은 언어폭력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으며, 물리적 폭력 이상 중대한 문제임을 의미하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릴적 언어폭력의 경험으로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현재의 경험은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종단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어릴 적 경험한 언어폭력에 대한 경험의 본질과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현상을 지향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자는 질적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까지 질적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질적 세미나와 워크숍 참여뿐만 아니라 상담 활동도 해오고 있으며, 철학이나 영성 강의, 모임 등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질적 연구자로서 체험의 본질, 현상학적 질문, 반성적 사고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구자의 가정과 선 이해, 편견들을 메모하고 기록하면서, 참여자들의 경험을 객관화하고 거리를 두기 위해 판단중지, 괄호치기 등을 하고 있으며, 질적 연구 활동을 하는 교수자 모임에도 참여하며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체험의 본질을 해석학적으로 분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실질적인 면담을 진행하기 전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기 위한 시간을 가졌으며, 면담 진행을 위한 시간과 날짜를 약속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시간과 날짜는 참여자가 가능한 시간과 날짜로 선정하였으며, 면담 장소는 연구자의 연구실 또는 강의실 등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은 개별 면담으로 1회 1시간 정도 일대일 심층면담으로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주로 누구와 대화를 많이 하나요', '대화 주제는 어떤 것인가요'라는 일반적인 대화형 질문을 시작으로 '어릴 적 기억나는 사건이나 상황이 있나요',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말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상처로 남아 있는 말은 무엇인가요' 등의 구체적인 질문으로 면담을 진행해 나갔다. 면담시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어릴 적 경험과 기억을 자유롭게 떠올리고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면담 분위기를 최대한 배려해 주었으며, 면담을 위한 질문은 비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하였다.

면담시 면담 내용은 녹음을 실시하였으며, 중요한 면담 내용이나 의미 있다고 사료되는 내용

에 대하여 메모를 하거나 재질문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재진술, 명료화, 구체화 등의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면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과정이나 면담 종결 후 참여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피로도나 감정 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은 참여자들이 어릴 적 경험한 언어폭력과 관련하여 더 이상 새로운 진술이 제시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종료하였으며, 최종 면담이 종료된 후에는 연구 참여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였다.

2.5. 실존적 탐구

2.5.1. 언어폭력의 어원

언어폭력(言語暴力)은 말로써 온갖 음담패설을 늘어놓거나 욕설, 헐박 따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나타내거나 전달하는데 사용하는 음성, 문자 등을 이용하여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하거나 억누르는 것을 의미한다[13].

2.5.2. 속담에 묘사되어있는 언어폭력

'세 치 혀가 사람 잡는다'라는 속담은, 세치 밖에 안되는 짧은 혀라도 잘못 놀리면 사람을 죽게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의미한다.

'혀는 창보다 많은 상처를 준다'는 속담은, 말을 할 때 사용하는 혀가 상대방에게는 씻을 수 없는 화의 근원으로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으로, 말을 조심해야 함을 강조하는 프랑스 속담이다.

'말은 칼보다 더 많은 상처를 입힌다'라는 속담은, 남에 대한 험한 말 한마디는 마음에 상처를 입히므로 더욱 더 말 조심해야 함을 의미하는 서양속담이다.

2.6. 해석학적 현상학적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참여자의 체험의 본질이 있는 그대로 충분히 묘사될 수 있도록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시 체험의 본질에 집중하고자 연구자의 가정과 선 이해, 연구자의 경험과 어원 추적, 속담 및 이미지 등을 통해 통찰한 결과와 비교분석하는 실존적 탐구 과정을 실시하였다.

일차적으로 녹음된 내용을 여러 번 청취하면서 필사하였으며, 필사된 면담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

으며 전체적인 맥락에서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을 가졌다. 다음으로 같은 유형의 개념과 주제를 분류해 나가며 참여자의 진술 중 언어폭력 경험과 관련된 의미 있는 구절을 강조하며 집중 분석하였다. 주제 분류시 면담 진술 내용이 참여자 체험의 본질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행간 접근법, 특징 접근법으로 분석하면서 주제 진술과 본질적 주제를 분류해 나갔다. 분류된 주제에 따라 원자료로 되돌아가 체험의 본질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렇게 도출된 주제들을 통해 참여자의 어릴 적 언어폭력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반응을 통한 통찰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2.7. 연구의 엄격성과 신뢰도 확보

본 연구의 엄격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Guba와 Lincoln [14]의 네 가지 질적연구 평가 기준을 적용하였다. 사실적 가치를 위해 어릴 적 기억들과 상황 재연 등 여러 지인들과의 관계성 등에 대한 설명을 하며 언어폭력의 경험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참여자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참여자들간 진술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재확인, 재진술하는 과정을 통해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적용 가능성 확인은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진술을 주제별로 정리한 후 다음 참여자를 위한 면담 질문으로 활용하므로써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진술이 더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자료의 중립성을 위해 실존적 탐구를 함으로써 자료의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2.8. 윤리적 고려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연구자 소속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았다(승인번호: 1044396-202007-HR-134-01).

3. 결과 및 고찰

3.1. 주제와 관련된 개념도출 및 범주화

본 연구는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실시한 간호대학생의 성장기 때 경험한 언어폭력에 관한 것으로, 5개의 본질적

주제와 13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내용은 Table 1과 같다.

3.2 성장기 때 경험한 언어폭력 알아보기

3.2.1. 사소한 대화로 시작됨

평소와 같이 대화를 주고받는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나에게 대한 이해나 배려는 전혀 하지 않는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서 농담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말이 오랫동안 귓가에 남아 혼돈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에 한 방 맞은 듯 머릿속이 어지럽다. 생각할수록 불쾌해지고 아무리 잊으려 노력해도 자신을 향하여 되돌아오는 언어의 화살은 오랫동안 깊숙이 상처로 박혀 있는 경험을 하였다.

(1) 그 말이 계속 귓속에 맴돌

누구나 감추고 싶거나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약점이 있을 것이다. 가장 가깝고 믿고자 하는 대상에게 이해와 위로를 받고자 하는 마음에 자신의 약점을 털어놓기도 하지만, 때로는 스스로가 자신의 약점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차리고 표출시킬 때는 매우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말들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 힘들게 하였다.

평소라면 그런 말을 들어도 웃으며 넘겼을 거예요. 그런 게 언어폭력이라고 생각도 못했고. 내가 제일 부끄러워하는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여 망신을 준 것에 대한 속상함과 부끄러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친구들은 장난으로 한 말이었겠지만 기분이 매우 나빴고, 다들 평소에 나를 그렇게 생각을 했겠구나 그런데 아닌 척했구나, 그런 마음예요.(참여자 4)

내가 장난 식으로 말한 게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너한테는 장난으로 안 들리겠지만 너한테 약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뒤에서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대한 험담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것도 쫓겨했던 친구가...(참여자 6)

Table 1. Verbal Violence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during Growth Period.

Themes	Sub-themes	Meaningful Statement
Beginning with a trivial conversation	The words kept ringing in my ears.	I said this as a joke, but I feel bad. I found out that he cursed at me.
	I became unpleasant the more one thinks about it.	They talked about young children carelessly. I felt like I'm not recognized as a family member.
	I was hit by an ax of faith.	As time goes by, my heart was still hurt. The other person used my weaknesses to make fun of me.
Getting confused mind	I became angry as time went by.	My emotions didn't fade over time. I felt frustrated and frustrated.
	I felt guilty for myself	I came to think of myself as worthless. I felt like I'm not worthy of my dignity.
	I had become internalized by myself	I lost my self-esteem. I came to think of myself as that kind of person.
Being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myself	It remained a scar on my heart.	I also said hurtful things to someone. I was also the perpetrator of verbal violence.
	I didn't realize it until then.	I was unable to do stand it. I ended up saying harsh things. I also said irreversible things to my friend.
Changing the frame of my thought.	I let go of my past thoughts.	I let go of my feelings and let go of them. I also tried to embrace and embrace the other person's faults.
	I wanted to create a new side of myself.	I tried to get out of my past wounds. I tried to accept the other person's position.
Making a mature "me."	I recovered my self-esteem.	I tried to love myself. The words of the other person comforted me.
	I was able to respond with leisure.	I expressed my feelings honestly. I had the freedom to laugh it off.
	I realized the importance of language.	It made me think again before I say something. I try to say good things that can heal you.

(2) 생각할수록 불쾌해짐

친한 관계의 사람들일수록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며 대화를 나누고, 대화 속에서 상대방이 사용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상대방이 나에게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더군다나 믿고자 했던 가족이 던지는 말 한마디나, 아직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에게 어른이라는 잣대로 외적인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단정해 버리듯 하는 말 한마디는 생각할수록 불쾌감을 갖게 하였다.

어떻게 어린이한테 똥똥한 거 보니 게으른가 보네, 주걱턱이라 인물 없네, 엉덩이가 커 애 잘날 겠네, 아무리 어른이라고 해도 한 창 클 나이의 어린이한테 너무 막말 아닌가요.. 그때는 제가 어려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엄마도 옆에 계시면서 그런 말하는 어른들에게 아무런 디펜스를 안 해준 것이 너무 서운하고, 그런 말이 아직까지도 마음에 남아 있어요.. 지금은 날씬하고 몸매 너무 예쁘다 해줘도 꼭 놀리는 것 같고, 어릴 적 그 말들이 너무 마

음에 남아 있어요..(참여자 2)
가족회의 한다고 하시면서 너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니가 뭘 안다고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머리가 멍해지면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느낌, 화도 나고, 속상하고, 그 순간 나는 뭉지.. 그런 느낌이 들었죠.. 지금도 제 의견을 잘 표현 못하고, 말 해봐야 무시당하겠지, 그런 기억들이 저를 지배했었죠..(참여자 7)

(3) 믿는 도끼에 한 방 맞음

상대방은 평소 나에 대한 태도나 행실에 대하여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려고 노력도 하고 한층 성숙해지고 있다. 그러나 변화하려는 나의 노력이나 행동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상대방은 과거 속 내 모습만 기억하며, 말을 함부로 내뱉는다. 상대방이 내뱉는 한마디의 말은 강타가 되어 평생의 상처로 남아 있다.

엄마한테 제 목표를 말씀드리고 이제부터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었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걸 한다고, 안 봐도 비디오대..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고, 화가 났고, 답답했죠. 아무리 평소에 엄마를 실망시켜 드렸다 해도 누구보다도 나를 응원해줘야 할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지금은 기억이 많이 흐려졌지만, 한동안은 제가 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도 생각할수록 막.. 너 무너무 한 거예요.(참여자 9)

야, 이 답답아, 동생이 니를 무시하는 이유를 알겠냐, 야 특 썩냐 등등 예전에 제가 그 친구에게 떨어났던 고민거리들을 오히려 저를 공격하는데 쓰고, 저를 이해해 달라는 뜻에서 했던 말들로 저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지기도 하고, 온 몸의 기운이 빠져 녹아내릴 것 같다가도, 주먹으로 한테 치고 싶을 정도로 불끈불끈.. 혼자 막 으억.. 그러면서 그게 언어폭력인줄조차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참여자 1)

3.2.2. 마음이 혼란스러워짐

상대방의 말 한마디는 오랫동안 귓속에 맴돌며, 나를 힘들게 하였다. 믿었던 대상이었기에 그 말 한마디는 머릿속에 맴돌며 더욱더 힘들게 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과 감정은 혼란스럽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의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되새길수록 분노의 감정은 나 자신을 옥죄이며 자책하게 만들고, 그 말은 나의 콤플렉스가 되어, '그런 나'로 나 자신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1) 분노감이 생김

나에 대한 상대방의 말 한마디는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욱 혼돈에 빠지게 만든다. 왜 내가 그런 말을 들었어야 했었냐, 그때는 왜 아무런 말도 못했을까, 상대방에 대한 분노는 더욱 강해지는 경험을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사그라들지 않고 자꾸 그 말이 되새겨지는 거예요.. 잊을 만 하면 또 생각나고,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기억이 흐려지긴 했지만 왜 그런 말을 듣고도 아무런 제스처를 못했냐, 그때 느꼈던 감정들과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참여자 3)

속이 답답하고 억울해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나 싶고 그깟 말 한마디에 내가 왜 이러나 머리가 복잡해지고, 내가 그렇게 못났나 가볍게 넘기자 나도 잘난 거 있어, 그래도 나를 만만하게 봤으니 그런 말 한 게 아닐까 느껴지고.. 그러면서 저 자신을 다그치는 거죠(참여자 10)

(2) 자책감이 생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는 분노감을 상대방에게 표출할 수 없기에 그 분노감은 자신에 대한 자책감으로 바뀌어 자신을 질책하게 되었다. 상대방을 믿었던 만큼 그 말에 대한 충격은 더욱 크게 가슴 깊이 아프게 느껴지고, 자신에 대한 자책감으로 이어졌다.

아마 중학교 때의 말 한마디가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말만 들어도 굉장히 예민하게 과민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너무 속상하고 정말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꼈었죠.(참여자 2)

어쩌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모습에 대해 그런 말을 하고, 저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었구, 나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생각 자체가 저를 괴롭히고, 그런 제가 또 미워지고.. 계속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8)

(3) 자신 스스로 내재화 되어감

웃어넘겨 보려 해도 자신 스스로를 질책해 봐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 말들이기에 머릿속 깊이 남아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그런 말의 형상을 내 자신 안에 내재화시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듯 가뒀놓고 구속하려 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때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웃어넘기면서 그래 맞아 라고 했지만 은연중에 머릿속에 박혀 그래 나는 못났어, 나는 그래 라고 하면서 제 스스로가 제 자존감을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소심해지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도 생기고 또 그런 제가 싫어지고..(참여자 9)

초등학교 4년 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참 암울했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친구 사귀는 것두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 또 그런 말을 들을까봐, 아니 또 그렇게 말하겠지 하는 생각에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관계를 맺는 것을 힘들어 했었어요. (참여자 5)

3.2.3.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됨

그렇게 시간은 흐르면서 내 안에 남아 나를 괴롭히던 말들에 의해 억눌려 있던 내 감정은 상대방과의 작은 다툼을 통해 분출되면서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또 다른 막말로 상처를 주게 된다. 그때서야 나의 언행을 되돌아보게 되고 자신도 역시 깨닫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상대방에게 많은 언어적 상처를 주었음을 느끼게 된다.

(1) 미처 깨닫지 못함

나 자신만 상대방의 말에 의해 상처받았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나 자신은 더욱 괴롭고 힘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상대방 역시 내가 한 말에 의해 상처받았음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언어표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친구가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너도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있어..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한동안 머리가 좀 멍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가 제게 했던 섭섭한 말만 마음만 담아 두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느낀 게 아, 나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나도 말조심 해야겠구나.. 나도 어느 순간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겠구나, (참여자 2)

친구에게 평소에 하듯 장난처럼 한 말이었는데, 갑자기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너무 당황했죠.. 그런데 너는 그런 말을 또 하니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아 내가 그 친구에게 언어폭력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바로 사과를 하긴 했어...요.(참여자 7)

(2) 자신도 언어폭력의 가해자였음을 알게 됨

말로써 이미 상처받은 마음은 상대방에 대한 감정으로 남아 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마디의 말에 잔재 되어 있던 작은 불씨가 불꽃을 튀기며 되살아나듯 서로의 마음에 옮겨 붙어 길잡을 수 없는 말싸움으로 번져 버리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은 또 한 번의 상처를 남기고 그제서야 나도 누군가에 말로써 상처를 주었음을 느끼게 되었다.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험한 말이 서로 오고 갔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저도 할 말 못 할 말 생각 없이 막 다 쏘아 붙였고, 그 친구도 저한테 저런 말까지 생각될 정도의 말을 막 내뱉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저지만 그 친구도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정말 말은 조심해야 해요. 가까운 사람한테 더 조심해야 하는데 상처 주는 말을 더 쉽게 하는 것 같아요.(참여자 4)

친구가 먼저 시비를 걸었지만, 순간 욕하는 감정에 저도 친구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한 거죠. 순간 교실에 정적이 흘렀고, 그 당시 이걸 내가 한 말이 아닐 거야 절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5초 후 현실을 인식하고 가장 먼저 친구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사과는 했지만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아찔해요.(참여자 9)

3.2.4. 생각의 틀을 바꾸나감

시간의 흐름 속에 나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있다. 상황에 따라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도 배워가고 있다. 상대방의 언어표현을 경험하면서 해야 할 말인지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인지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예전에 내가 경험했었던 그 말들이 진정 나의 모습을 대변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게 되었다.

(1) 털어 버림

예전에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말에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지도 나 자신을 움아매지도 않는다. 나의 어눌한 말투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어 감사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려 한다.

지금 성인이 되어서 어렸을 때 저의 모습을 생각하니 너무나 안쓰럽더라고요.. 왜 그런 말 한마디에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지, 지금 친구들과하고 얘기하면서 다 털어내고, 쌓였던 감정을 풀어냈죠, 지금 친구들에게 너무 고맙죠, 다 받아주고 이해해 주니까요.. 허물도 감싸주고 받아주는 게 그런 게 참 친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참여자 3)

생각 없이 한 말에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것이 억울하고 슬프더라고요. 그 사람은 인격이 그렇게 밖에 안되는 건데,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주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자, 그리고 후에라도 누군가 나에게 이런저런 말로 공격을 한다 해도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만큼이나 신경 쓰지 말자, 그렇게 털어버리게 되더라고요.(참여자 8)

(2) 새로운 모습의 나를 만들어 가고자 함

그 누군가의 어떠한 말로도 나를 더 이상 가두어 두지 않는다. 나는 이미 새로워진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가며 현재를 자신 있게 열심히 살아 가고자 하기 때문이다.

저에 대한 사람들의 말속에 저를 가두어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또 그런 말을 하면 어쩐지 상처받기 싫어서 만나는 것도 싫고.. 어느 날 상대방을 보면서 아 나도 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가, 사람들은 나한테 별 관심이 없는데 과거의 상처 받은 말속에서 내 자신이 벗어 나지 못하고 있었구나.. 뭐라고 하든 그래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살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참여자 6)

언젠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진다면 저도 똑같이 폭력적으로 맞서기보다는 저의 감정을 차분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 같아요. 똑같이 맞선다면 저도 역시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제가 뺏은 말에 상대방 역시 상처를 받을 것이고 저두 후회하게 되

겠죠...(참여자 7)

3.2.5. 성숙한 '나'를 만들어 감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처받았을 나를 위로하고 무너진 자존감을 세워야 하는 것도 자신 스스로라는 것을 너무 잘 알게 되었다.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힘도 내 안에 있기에 나는 강해지려 한다. 강하기에 나는 상대방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갖게 된다. 또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1) 자존감을 회복해감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것은 진정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안의 열등감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한다. 어느 누구보다도 소중한 나 자신에게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하고 나를 존중해 주는 대상이 있어 감사한다.

남들이 저에 대해 무슨 말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자신에 대한 마음이다더라고요. 제 안에 있는 열등감이 남들 말 한마디에 흔들리면서 상처가 되었구나, 그런 말 한마디에 나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속상해 했구나, 나를 사랑하고 건강한 정신을 갖도록 노력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요.(참여자 3)

너무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시면서 제게 공감 해주시는데, 그때 그 말 한마디에 치유가 되는 느낌, 이렇게 말 한마디가 중요구나 마음의 위안을 받았었던 좋은 기억으로 남아 정말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느꼈죠.(참여자 7)

(2) 여유로이 대응하게 됨

누군가의 말 한마디는 어린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마음을 멍들게 했다. 그러나 지금은 좀 더 이성적인 판단으로 대응한다. 적절한 표현으로 나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때로는 여유로운 웃음으로 웃어넘기기도 한다.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어리기도 했고, 언어폭력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에 언어폭력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다 라고만 생각했었겠죠. 지금은 누가 그런 말을 하면 그런

말은 안했으면 좋겠어, 너 그렇게 말해서 좀 기분 안 좋아 라는 등 하면서 제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죠(참여자 9)

그때는 어리고 미숙했던 지라 갑자기 날아오는 욕들에 놀랐고 너무 화가 나는 데 보이는 게 없어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 했죠. 문자 그대로 몸이 얼어붙고 여안이 병병하고 저도 똑같이 쌍옷 낄리고...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면 그냥 웃어 넘길 것 같아요.. 시간을 좀 두고 볼 것 같아요..(참여자 10)

(3) 언어의 중요성을 절감함

말 한마디, 적절한 언어의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는 체험을 통해 몸소 알고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진심 어린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자 노력한다. 그 말 한마디는 미래 나의 간호를 제공 받을 대상자에게도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치유의 힘으로 작용되기를 바래 본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문자나 말을 건넬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제가 상처를 받아 봤으니깐요.. 이왕이면 좋은 게 좋다고 좋은 말 하려고 노력해요.(참여자 3)

언어폭력은 사람의 마음과 자존감에 지속적으로 손상을 입히고, 뇌에도 상처를 입혀서 평생의 흔적으로 남는다고 하잖아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가족과 친구의 관계가 망가질 수도 있고, 상대방의 자존감을 짓밟기도 하고, 희망을 주기도 절망을 주기도 하구..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나중에 간호사가 돼서도 환자들에게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말 한마디라도 잘하려고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요..(참여자 5)

3.3 고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성장기 때 경험한 언어폭력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았으며, 그 경험의 의미와 본질은 무엇인지 탐구해 보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언어폭력 경험에 대한 본질적 주제는 ‘사소한 대화로 시작됨’, ‘마음이 혼란스러워짐’,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됨’, ‘생각의 틀을 바꿔나감’,과 ‘성숙한 나를 만들어 감’으로 도출되었다.

첫 번째 본질적 주제로, 언어폭력은 ‘사소한 대

화로 시작됨’이다. 참여자들은 평소와 같이 친구를 비롯한 가족들과 만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나 주고받는 대화 중에 참여자가 숨기고 싶거나 거론되길 원하지 않았던 단점이나 약점들이 주제로 거론되어 불편한 마음이 들게 하였다. [2,13]는 언어폭력에 의한 상처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무력하게 만들고 웃음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아직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였기에 어른들이 하는 말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으나 참여자 자신에 대하여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였다. 언어폭력은 대부분 동등하지 않은 권력 관계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으며[15], 언어폭력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우월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며[16], 언어폭력은 타자의 다름을 존중하지 않는 공간에서 더욱 위협적이고 강하게 나타나고 [2],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줌으로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며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17]. 그러나 참여자들은 언어폭력의 상대가 친한 친구였거나 어른이었기에 반박하지는 못했지만 평소와는 달리 날카롭게 들려오는 말 한마디에 기분이 나빠지고 서운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숨길 수는 없었다고 하였는데, 언어폭력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분노, 공포, 모욕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하였다[9,15]. 그러나 참여자들은 가장 믿고자 하는 가족이나 부모님이 참여자의 과거 모습에 국한되어 변화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순순히 받아주지 못하고 그에 반하는 말을 하며 무시하듯 하는 말을 하여 상처를 받는다고 하였는데, 언어폭력은 인식 대상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의한 차이에서 의도치 않게 유발될 수 있다고 하였다[18]. 그러나 참여자들은 상대방의 말을 웃음으로 흘려보내려 하였지만, 그 말들은 오랫동안 귓속에 남아 계속 맴돌고,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욱 불쾌해진다고 하였다. 언어폭력의 공간성에 대한 설명에서 공격받는 자가 공동체의 주변에 가까울수록 더 위협적이라고 하였으며[2], 언어폭력이 장기간에 걸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집단이 가족이며, 피해자들은 부모에게 맞는 것보다 언어폭력이 더 힘들었다고 보고하였다[11]. 참여자들 역시 가족이나 부모님에 의한 언어폭력이었기에 그 상처는 더욱더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정 및 가까운 대상들과의 관계 속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언어순화 교육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 사용법 등에 대한 대안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본질적 주제는, 언어폭력으로 인해 ‘마음이 혼란스러워짐’이다. 사소한 대화로 시작된 말 한마디는 잊으려 해도 귓속에 계속 맴돌며 한 방 맞은 듯 머리와 가슴을 멍하게 만들었다. 생각할수록 마음은 더욱 불쾌해지고 추스를 수 없는 감정으로 휩싸여 갔다. 그때는 왜 아무런 반박도 못했을까 오히려 머리는 복잡해져 가고,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만 가득 찼었다고 하였다. 언어폭력은 언어를 수단으로 상대방의 언어능력을 손상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언어폭력으로 상처받은 사람의 목소리를 빼앗기도 한다고 하였다[19]. 또한 언어폭력 경험 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울이나 불안 등이 초래 될 수 있으며, 언어폭력을 당한 후 부끄러움과 분노가 첫 반응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분노가 잠재되면 폭력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져 또 다른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20,21]. 참여자들 역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바보같이 여기며 자책해 보기도 하였다고 하였다. 언어폭력은 상대방에게 심적 통증을 유발시키는 메시지로 작용하여 상대방의 자존심에 해를 끼치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한다[21]. 참여자들 역시 언어폭력의 경험을 잊어버리려 해봐도 그 말들은 마음에서 쉬이 잊혀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분노감이 생겼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자책감과 자신 존재에 대한 부정이라는 생각에 존재가치가 없다고 느끼기도 하였는데, 언어폭력 경험이 있는 초등학교생들의 언어폭력은 습관화되어 성인기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18]. 참여자들 역시 언어폭력 경험으로 인해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 대화를 해도 이미 참여자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타인에 의한 자신의 이미지는 내재화되어 가고, 자신을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자신의 행동거지를 발견하면서 마음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져 갔다고 하였다. 따라서 언어폭력 경험자들이 자신들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상담이나 심리적 지지 등을 위한 관리나 제도가 좀 더 효율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본질적 주제는, 언어폭력으로 인해 ‘나

를 돌아보는 계기가 됨’이다. 참여자들은 상대방이 던진 말들을 다시 되새기며 오히려 자신의 못한 탓이라 여기게 되는데, 언어는 언어로 나타난 개념을 동일화하려는 의미가 있으며, 언어자체에 폭력성이 내재된 것으로, 특별한 예민함에 의해 상처를 받는 것이라고 하였다[2]. 또한 참여자들은 타인의 말을 인정하듯 자신을 그렇게 수궁해 보기도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말에 의한 불편한 감정은 마음속 깊이 눌러진 채 잔재되어 있었던 것 같다고 하였다. 언어폭력은 상처를 남기지는 않지만 보다 더 큰 심리적 외상을 남긴다고 하였다[2].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상대방과 나누던 대화 속 한마디 말에 참여자의 감정은 폭발하였다. 그동안 잔재되어 있던 불편한 마음은 마음속 작은 불씨가 되살아나며 폭발하듯 터져 나오며 그동안 상대방에게 싸여있던 감정과 뒤섞이면서 견잡을 수 없는 언어표현으로 분출되어 흘러나왔다. 언어폭력이 갖는 문제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며[22], 언어에 의한 폭력은 언어를 넘어서 물리적인 폭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23]. 언어폭력을 당하는 사람은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심리적인 고통을 겪게 되어 보복성 공격으로 또한 언어폭력을 사용하게 되고, 언어폭력이 다시 되돌아오는 방식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나타난다고 하였다[24]. 또한 폭력 관련 경험이 많을수록 공격성이 높으며[4], 언어폭력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이 간호사가 되었을 때 다시 폭력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25]. 이러한 현상에 의해 언어폭력의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참여자들은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는 자신의 모습에는, 자신 역시 상대방에게 말로써 상처를 주었던 가해자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면서, 이 또한 참여자의 마음에도 상처로 남아 있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언어폭력으로 인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연계성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며, 이들 모두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본질적 주제는, 언어폭력 경험을 통해 ‘생각의 틀을 바꿔나감’이다. 상대방의 언어폭력에 상처를 받은 마음은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 또다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대상을 알아가기 위한 인식능력 즉 정신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고 하였으며[9], 언어 사용은 인식 능력

에 의한 것으로 올바른 판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하였다[4]. 따라서 참여자들 역시 주위 답으려 해도 주위 답을 수 없는 한 번 내뱉은 말 한마디는 참여자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됨을 알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시간이 흐르고 성장하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되었다. 참여자 자신이 받은 말 한마디에 의한 마음의 상처, 그 상처로 인해 누군가에 던진 한마디의 말은 또다시 상처를 주게 됨을 깨닫게 되면서 한마디 말을 예민하게 불쾌하게 받아들였던 자신의 감정을 털어버리고자 하였다. 폭력적인 언어표현에 대한 문제 인식 정도에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폭력적인 언어표현에 대한 문제 인식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 악성댓글에 대한 반응 역시 학년이 높아질수록 심각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26], 폭력적인 언어를 경험한 피해자들은 고통스러웠던 마음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18]. 따라서 참여자들 역시 자신 스스로를 상대방이 던진 그 한마디의 말과 같이 자신을 치부해 버리고 내재화하려 했던 자신의 오랜 감정과 모습,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자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스트레스 관리 등 중재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본질적 주제는, 언어폭력 경험을 통해 '성숙한 나를 만들어 감'이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과거 자신을 움아매고 있던 말의 틀 속에서 벗어나고 감정도 털어버렸다. 참여자를 이해해주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는 대상이 있어 위로가 되고 자존감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회복된 자존감은 또 다른 언어적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주었고, 그 방법을 통해 언어폭력을 행하는 상대방에 대한 여유로운 마음도 갖게 해주었다고 하였다[27]. 역시 언어적 폭력으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고자 관계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시도하며 좋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 현명하게 대처하고자 노력하게 된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모습은 그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그래서 성숙한 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기격려는 자신의 긍정적 가치와 강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것으로, 자기격려를 함으로서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

지 않고 자신의 내적 자원을 통해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하며[28], 언어폭력 경험은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기존중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긍정적 내적 변인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25]. 참여자들 역시 건강한 자신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또한 한마디의 말로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것과 치유의 힘이 되어 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한마디의 말은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자기격려, 자기긍정, 자존감 회복 등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교육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과거 어린 시절 경험한 언어폭력에 대한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참여자들은 언어폭력이라는 개념을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언어폭력에 노출되고, 대처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공감해주는 한 마디의 말을 통해 언어폭력에 의해 낮아졌던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들도 누군가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자신들도 대상자들에게 치유의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훌륭한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4.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성장기 때 경험한 언어폭력에 대한 것으로, 그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고자 시도한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이다. 참여자들은 믿었던 가족이나 친한 친구로부터 사사로운 대화 속에서 자신의 약점을 표출 당하는 언어폭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추스를 수 없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빠지게 된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기에 자신에 대한 분노와 자책감에 빠져들게 되고, 가슴 속에 남아 있던 그 감정으로 인해 또 다른 언어폭력의 가해자가 된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언어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준 것은 공감과 자기 긍정 에너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언어폭력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통해 언어폭력으로 인한 감정을 그 상황에서 적

절하게 표출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안과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언어 사용의 중요성과 개인 역량 강화, 효과적 의사소통술의 중요성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언어폭력으로 인한 대상자들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상담이나 심리적 지지 프로그램이 대처 방안과 함께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한다. 둘째, 언어폭력에 의한 가해자와 피해자간 상호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공감이나 자기 긍정효과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References

1. B. M. Kang, "Language: introduction to linguistics. 4th", pp.24-29, Han Kook Mun Hwa Sa, (2020).
2. M. Y. Kim, "Theoretische Überlegungen zur sprachlichen Gewalt. Koreanische Gesellschaft für Deutsche Sprache und Literatur". Vol.63, pp.30-51, (2015).
3. B.S. Kim, "A Secret Murder, Verbal-Violence.". In Mul, pp.168-234. (2017).
4. J. P. Burton, J. M. Hoobler. "Aggressive reactions to abusive supervision: the role of interactional justice and narcissism".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Vol. 52, No4, pp.389-398, (2011).
5. The Department of Education. "The first of 2019 Survey on School Violence." Announced Tuesday, (2019).
6. E. J. Jang.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cognition about Verbal Aggression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and Korean Language Teachers." *Journal of CheongRam Korean Language Education*. Vol.56, pp.229-255, (2015).
7. G. A. Cheon. "A child's brain is bruised by just shouting." *Dong A Science*. Vol.2, pp.154-156, (2019).
<https://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402N046>
8. E. E. Yang. "The first time I've ever met a brain science story." *Cassiopeia*, pp.138-145, (2016).
9. M.A. Hamilton. "Verbal Aggression: Understanding the Psychological Antecedents and Social Consequences".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Vol.31, No.1, pp.5-12, (2012). DOI:10.1177/0261927X11425032
10. EBS Special Youth Planning. "A Two-part series of the Language Violence Improvement Project." March 11-12th, (2013).
<http://home.ebs.co.kr/docuprime/reViewChargeOpen>
11. J. S. Lim.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Verbal Violence in Workplace."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Vol.8, No.2, pp.91-111, (2014).
12. Van Manen M.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K. R. Shin, Trans.). Seoul: Hyunmoonsa: 2000. (Original work published 1990)
13. Dong A. "Standard Korean Dictionary. Seoul: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Studies." pp.4243. (2014).
14. E. Guba, Y. Lincoln.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es and naturalist approaches." San Francisco: CA: Jossey-Bass.(1985).
15. J. I. Kim, T. W. Lee. "The Influence of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Compassion Fatigue and Compassion Satisfaction on Burnout among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Clinical Research*. Vol.22, No.2, pp.109-117, (2016).
<https://doi.org/10.22650/JKCNr.2016.22.2.109>
16. S. H. Lee, S. E. Chung. "Nurses's Experience of Verbal Violence in Hospital Sett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3, No.4,

- pp.526-536, (2007).
17. M. H. Kernis, C. E. Lakey, W.L. Heppner. "Secure Versus Fragile High Self-Esteem as a Predictor of Verbal Defensiveness: converging findings across three different markers." *Journal of Personality*. Vol.76, No.3, pp.477-512, (2008).
 18. M. Y. Kim. "Eine theoretische Betrachtung zur unbeabsichtigten Sprachgewalt." *Koreanische Gesellschaft für Deutsche Sprache und Literatur*. Vol.78, pp.115-133, (2017).
 19. D. Felbinger. "Incivility and bullying in the workplace and nurses' shame responses."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and Neonatal Nursing*. Vol.37, No.2, pp.234-242, (2008). DOI: 10.1111/j.1552-6909.2008.00227.x
 20. D. A. Infante, A. Rancer, L. C. Wigley. "In Defense of the Argumentativeness and Verbal Aggressiveness Scale." *Communication Quarterly*. Vol.59, No.2, pp.145-154. (2011).
<https://doi.org/10.1080/01463373.2011.563439>
 21. S. A. Joung, K. Y. Park. "Influence of experiencing verbal abuse, job stress and burnout on nurses' turnover intention in hemodialysis uni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2, No.2, pp.189-198, (2016).
<https://doi.org/10.1111/jkana.2016.22.2.189>
 22. C. R. Solomon. "Effects of Parental Verbal Aggression on Children's self-esteem and School Marks." *Child Abuse and Neglect*. Vol.23, No.4, pp.339-352, (1999). DOI: 10.1016/s0145-2134(99)00006-x
 23. Y. S. Park. "A Qualitative study on youth language life and school violence: narrative in their languag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nguage And Literature*. Vol.10, pp.167-186, (2013).
<https://doi.org/10.1177/17577438221108258>
 24. A. Y. Kim, S. M. Cheon, S. J. Park. "The Effects of Verbal-Violence Reduction Program on Self-Esteem, Emotional Awareness and Expression Abilities of Verbal-Violence Elementary School Students."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Vol.41, No.3, pp.1-25, (2017). DOI:10.33071/ssricb.41.3.201712.1
 25. Y. S. Lim, H. J. Kwon, G. O. Noh, K. R. Bae. "Verbal Abuse and Lowered Career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Training: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8, No.4(B), pp.2315-2328, (2016).
 26. A. R. Cho, J. Y. Lee. "An Exploratory Study on Vicious Cyber Replie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18, No.2, pp.117-131, (2010). DOI : 10.35151/kyci.2010.18.2.008
 27. C. S. Park, S. Y. Choi. "Nursing Students' Verbal Abuse and Coping Methods During Clinical Practic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12, pp.577-587, (2018).
<http://dx.doi.org/10.21742/AJMAHS.2018.12.41>
 28. R. Bahlmann, L. D. Dinter. "Encouraging self-encouragement: an effect study of the encouraging-training schoemaker-concept."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Vol.57, No.3, pp.273-288, (2001).